

‘프리미엄 담양딸기 수출전문단지’ 육성

농업기술센터,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전남도 국제협력관·전남농기원 수출전략 논의

담양군은 지난 20일 담양의 대표적 특화작목인 딸기의 프리미엄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전남도청 국제협력관, 전남농업기술원 및 담양군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 대상 단체인 금성농협과 딸기 작목반원 17농가가 참석해 프리미엄 담양딸기 수출전략을 논의했다.

담양군은 자체 개발한 딸기 품종인 ‘메리퀸’을 프리미엄 수출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 올해부터 2년 간 수행할 계획이다.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이철규 소장이 지난 2017년에 품종 출원한메리퀸은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딸기’라는 뜻으로 고당도·고경도의 조기 생산이 가능한 품종이다. 현재 소비자는 물론 유통시장에서도 인기가 높고, 수



출 품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담양군의 딸기수출 실적은 142톤, 15억 원이며, 금성농협은 올해 딸기 ‘죽향’과 ‘메리퀸’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프리미엄 시장에 수출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철규 소장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담양의 프리미엄 딸기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아나바다 장터 기부챌린지 첫 주자로 나섰다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11월 30일까지 기부 나눔 공간 운영

강인규 나주시장이 빛가람 혁신 도시에 문을 연 ‘아나바다 장터·플리마켓’(이하 아나바다 장터) 기부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20일 아나바다 장터를 방문해 기부챌린지에 참여한 뒤 다음 동참자로 김영길 나주교육지원청장을 지목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해 주민총회를 통해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한 아나바다 장터를 지난 10일 개장해 운영 중이다.

‘아나바다’는 각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면 장터를 통해 소비자들이 재구매해 사용한다. ‘플리마켓’은 다양한 제품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의 기부챌린지를 전개하고 있다.

참여자 본인이 사용(보유)한 물건을 장터에 기부하고 챌린지 참여 기념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게재, 다음 참여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챌린지 첫 주자로 참여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랜 시간 방치돼 버려질 물건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기부천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앞 존프라자 상가 1층(나주시 상양4길 21)에 들어선 아나바다 장터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연말 생활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첫 삽

2023년 완공 목표 100억 투입...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곡성군이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본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준비과정을 마치고 지난 5월 7일 본공사를 착공하게 됐다.

본공사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2년간 총 1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섬진강 침실습지와 연계한 방문자 센터, 전망대, 체험 및 관찰습지, 탐조대, 생태 놀이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곡성군 측은 사업이 완료되면 습지 훼손지 복원 뿐 아니라 생태탐방객 방문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진강 침실습지는 2016년 11월 환

경부로부터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보호지역 내에는 655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고유어종 17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습지 중 가장 많은 종류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흰꼬리수리, 수달, 삿, 남생이 등 멸종위기종 7종도 발견된다.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는 잔잔하게 피어오르는 새벽안개로 유명해지면서 섬진강의 무릉도원이라고 입소문이 나왔다.

곡성군 관계자는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를 복원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들께서도 침실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곡성=양혜영기자

장성군, 5억원 투입 도로 환경 정비

군도·농어촌도로 등 380km 구간 조사 후 맞춤 정비 시행

장성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갖추기 위한 정비에 나섰다. 군은 이달부터 군도, 농어촌도로 등 총 380km 구간에 대한 종합 조사를 통해 이용 불편 및 안전 위해 요인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도로 환경 정비를 시작했다.

장성군은 현재, 도로 내 파손 구간을 신속하게 보수하는 한편, 안전 운행을 위해 차선 도색을 보강하고 있다. 또 도로 위의 각종 안전시설물을 정비해 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시키는 중이

다. 총 사업비는 5억원 규모로, 오는 6월 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관내 도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침수와 포트홀(pot hole, 움푹 파인 노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2020년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모집

화순군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으로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19명을 모집한다. 분야별로 배출 지원 18명, 관리와 사무 보조 1명이다.

배출 지원 도우미는 공동주택과 재활용 동네마당을 순회 근무(4시간/일)하며 주민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홍보, 재활용 불가 품목과 이물질 현장 사전 선별 등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와 사무 보조는 배출 지원 인력 근태 확인, 실적 관리, 현장

점검을 맡는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근무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24일부터 26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화순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061-379-3604)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응시 자격, 우대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농촌지도사회, 수국 꽃길 조성 구슬땀

구례군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 구례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제공하고자 지난 18일 구례군농촌지도사회 회원 20여 명이 산동면 탑정리 도로변 일대에 수국 꽃길 조성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농촌지도사회는 구례군 대표 봄꽃인 산수유꽃이 진 뒤에 여름꽃 불거리로 수국 꽃길 조성할 계획으로 5월 초에 한국농촌지도사전라남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전

남 가꾸기 사업에 선정됐다. 지도사회는 꽃길 조성을 위한 경계석 쌓기, 경운, 잡초제거 등 기반정리 후 탐라수국, 라인라이트수국, 목수국 3종을 식재하는 활동을 펼쳤다.

수국 관리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산동면 농촌지도사회에서 잡초제거, 웃거름 살포, 관수 등 관리와 함께 계절별로 어울리는 꽃을 식재하여 4계절 아름다운 꽃동산을 꾸며갈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